

투데이 칼럼

행복 메시지

모든 일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재를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산이 없기 때문에... 학벌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 없기 때문에... 지시가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회사 때문에... 직원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나열해 보면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루어야 할 목표 앞에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나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김양욱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조건들이 '핑계화' 되어 늘 나와 친구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이런 조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 하면서 나의 가치는 Discount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가치 Bargain Sale! 50%! 365일, 연중무휴!" 위 내용이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이벤트를 매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개 내 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조건들은 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풀

어야 될 중요한 숙제이자 돌도 없지는 기회일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 진정한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새 생명을 가진 병아리가 되지만 낱이 깨면 계란 후라이 신세가 된다고나 할까. 철저히 조건과의 싸움에서 이깁시다. 자연은 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 아무리 멋지게 묘사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 현상

은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과감히 돌파를 하면 그 모든 것이 기회가 되니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그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나를 괴롭히겠조. 결국 이런 조건들을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먹었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다 이뤄지는 세상이면 사는 재미가 덜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극복해야 할 만성적인 조건들을 찾아보시죠. 이제 시간 핑계로 많은 것을 미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벌써 3월이네요. 우리 다함께 '조건 사랑'에 나서보면 어떨까요. 물러서지 말고 과감히 맞서서 철저한 조건들을 깨부숴보면 어떨까요. 실패와 집중, 끈기 그리고 실천, 지금 당장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성공적인 삶, 행복을 위하여!

독자제언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이 위협하다

갑질을 일삼는 몇몇 악성 민원인들은 경찰관들의 오래된 골치덩어리이다. 폭행 또는 욕설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주취자,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악성 민원인 등의 윙포로 경찰관들의 가슴에 멍이 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경찰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혹은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지난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10만명당 16.6명으로, 전체공무원(9.8명)보다 높다. 그 중 가장 많은 원인이 우울증이었다. 살인사건이나 대형 사고, 욕설을 습관적으로 하는 주취자, 그리고 방생 근무 등으로 충격적인 현장과 죽음을 자주 목격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많은 경찰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된 원인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주취자

를 비롯한 범죄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이 관대한 탓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술에 관대한 우리 법과 공무원행위 방해반야도 미미한 처벌규정은 술에 만취한 주취자들에게 욕설, 폭행, 인격비하발언도 서슴지 않게 만들어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 나의 가족, 지인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이 주취자들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을 제때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곧바로 치안의 공백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전국에서 밤낮으로 치안과 국민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경찰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박재원 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사이버캡' 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하다보면 당당하게 '누가 그런 말에 속냐'며 대응수습이 없게 여기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살마, 내가 속을 줄 몰랐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더 이상 몰라서 당하는 범죄가 아니다. 알면서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하게 되는 보이스피싱에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한다. 협박성 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하던 수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나 보증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대출방자형,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권취형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접근, 친분을 쌓은 후 택배비와 해외 거래 인증서 발급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까지 등장하였다. 범죄대상 역시 기존에 주로 목표가 되었던 노인층에서 최근에는 2·30대 젊은 층까지 폭 넓어짐으로써 그 피

해가 커지고 있다. 작년 수사기관이나 금융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중 70% 이상이 2·30대 여성이라는 사실은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특정한 연령, 대상만을 노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보이스피싱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애초에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지 않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만 사기범들의 화려한 언변과 심리적 압박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예방책 중 하나로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캡' 앱은 걸려온 전화가 사기 전화는 아닌지,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입금을 요구하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중 피해경보 안내까지 제공해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와 예방법을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새만금, 새정부에서도 갈 길이 멀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보다 심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했다.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새만금을 동북아의 허브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때가 때인지라 모든 관심사가 이낙연 총리의 말에 쏠려 있는데 전북도는 중심을 잡아서 속 생각을 다져야 한다. 이대로라면 새정부도 전일 정부가 보여줬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겠다는 판단이다. 전북도가 앞장 서서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관심사를 키워야 한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전북도는 스스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대대적인 혁신이 없다면 대통령의 입기 내에 속도감 있는 개발이 있을 리 만무하다. 역대 전일 정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정부도 나름의 적당한 한계선을 갖고서 개발의 모양새를 취할 공산이 크다. 며칠전에 새만금사업의 총괄기구인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있게 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게 실무론 기대였을 수도 있다. 전북도의 능력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로드맵을 구체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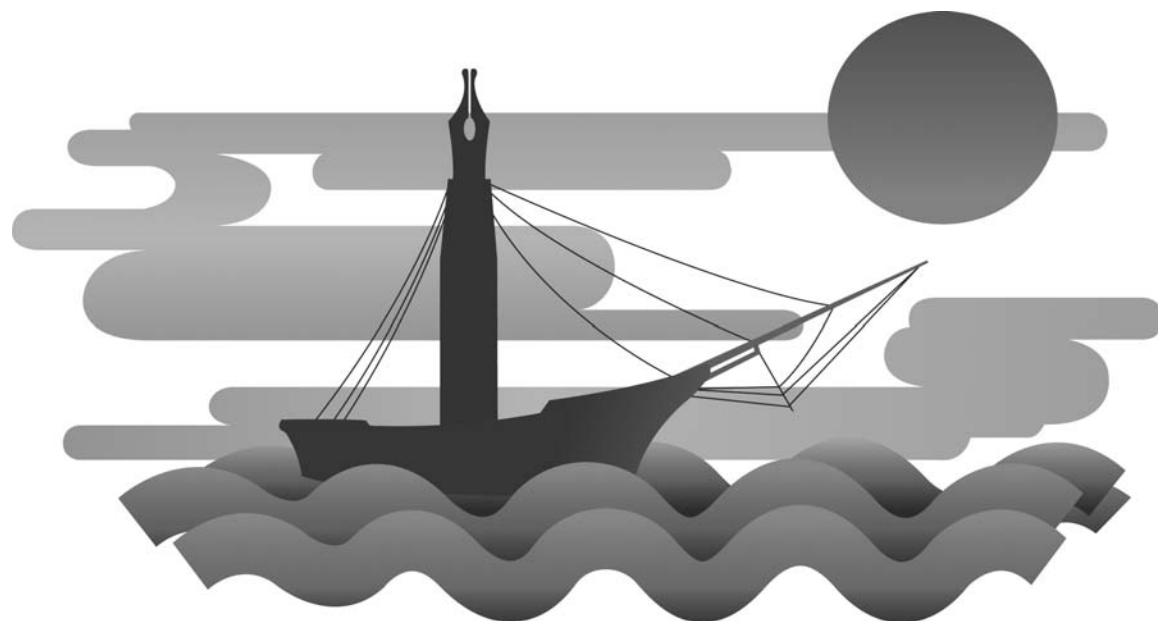
로 보여줄지도 모른다. 진짜 힘은 돈에게서 나오므로 전북도는 예산 증액의 명분을 강화해야 한다. 전북도가 청구한 내년 예산이 저번에 79%밖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다. 지금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을 위해 생각이 많을 것이다. 전북도는 더 많은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은 다른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너무 뒤쳐져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했던 것을 또 말하거니와 우리 전북 지역의 발전 보폭이 너무 좁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새정부도 예산 편성에는 전일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세부 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더 주물할 게 있다. 무슨 일이든 계획보다 성취가 중요하다.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예산 증액의 명분을 키워야 한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아리울로 키우려면 관계자들은 다른 광역시도의 브레인보다 더 많이 애써야 한다.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던 말을 또 해야겠다. 지역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도와 브레인들은 전북의 발전을 말해야 한다. 그렇듯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모든 관심사가 인사청문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국민의당의 의혹조작 사건에 쏠려 있다. 그게 당장은 관심이 쏠린다 해도 그보다는 먼저 지역 발전에 우리의 관심사를 두어야 한다. 그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 위해 생각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지역 발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말할 수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것을 또 언급하거니와 우리 전북 지역의 모습은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본 좋은 일이 결코 아니다.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물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이든 성취를 위해서는 진취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해야 한다. 전북도는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새만금사업 말고는 다들 고만고만한 일이다. 그리고 새만금사업도 그 진척이 너무 느리다. 2020년까지 1조6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워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지만 다양한 발굴사업도 개발해야 할 터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기민해야 한다. 지역 발전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예산 편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당부이다.

용 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